젊은 작가 YOUNG ARTIST

차이를 잇다
이예림

해외 예술시장에서 도자예술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미국 등지에서 최근 몇 년간 활발해진 도자예술 관련 전시와 행사, 브랜드 또는 특정 공간의 고급화 전략을 위한 도자 가구 오브제 제작 요청, 그리고 잇따른 대중의 도예에 관한 관심은 현재의 도자예술에 흥미로운 양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시도들은 도예의 미래에 희망적 기대를 갖게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예림 작가 또한 이 흥미로운 양상들을 저돌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작가 중 하나로, 지금 미국 현대도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예림 작가의 작품들은 추상적인 형태와 회화적인 유약표현으로 만들어지는 표현의 자유로움과 유연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표현에 대한 명분과 시각적 완성도를 중요시하는 한국도예의 경향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미국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먼저 도예를 배웠고, 그의 부모가 모두 도예가이며, 그의 아버지가 옹기 작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의 베이스가 한국전통도자라는 점을 전제해 주는 바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삶 속에서 옹기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도예를 배웠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하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전복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201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주립대학교에서 스페셜 스튜던트 과정을 밟으면서부터였다.

그는 이때의 경험에 대해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교와 알프레드 대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은 한국과 중국에서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전까지 그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작품의 시각적 완성도나 용도의 적절함 등과 같은 도예의 규율과 그 규율을 기준 삼아 작품의 가치를 판정받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은 기능성과 완성도가 배제된 대형의 오브제였다. 이 오브제들은 특정한 용도가 없고, 회화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형태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작업과 연결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2018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매체를 혼합한 대형의 설치 작업으로 진화한 후, 여러 개의 판을 불규칙적으로 이어 붙여 만든 듯한 불안한 형태와 반복적인 유약 시유와 번조로 도출한 생동하는 색감이 특징적인 최근의 작품으로 발전한다.

그의 오브제들은 차갑고, 화려한, 그리고 불안하면서도 감각적인 인상을 준다. 교집합이 전혀 없을 법한 상이한 인상들은 형태와 색감이 서로의 이미지와 상충되고, 또 보완됨으로서 도출된다. 말하자면 작품의 형태에서 보이는 인상들은 불안하고 나이브한, 거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주제전 <사물의 지도 The Geography of Objets> 내 이예림 섹션 전시전경

「쇼핑 스프리Shopping Spree」 457×317×406cm | 테라코타, 04 저화도 유약, 레진, 아세테이트 필름 | 2017

「테라 테이블Terra Table」 54×45×36cm | 코일 빌딩, 테라코타, 04 저화도 유약 | 2022

친 느낌인데 이를 파스텔에 가까운 세련된 색감과 날선 면들을 진주알처럼 유약덩어리로 둥글림으로써 부드럽게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그가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잇기 위해서이다. 이는 곧 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괴리되는 반복 속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백을 메꾸는 행위를 해왔다. 이는 그에게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을 제공해 주었다. 동양과 서양, 장식과 기능,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고급스러움과 퇴폐적인 것처럼 서로 상이한 관념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이고, 언제든 그의 손을 통해 조화로운 이미지로

1 알프레드 대학 졸업전시 작품으로 , 중앙의 도자조형물 주변으로 실,종이, 필름 등을 이용해 공간에 설치한 작업이다.

2 로스엔젤레스 디자이너 켈리 윌슬러와 협업한 테라코타 테이블로, 그녀의 온라인 갤러리에서 론칭한 작품이다. 옹기 타렴 기법을 이용해 제작했다.

<도파민 드레싱Dopamine Dressing> 전시전경 | 도자, 철제 조각, 나무 | 미시간대학교 미술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함으로써, 방법적으로는 가래성형이라는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리고 유약을 반복적으로 덧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말이다.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그의 작업은 이렇듯 다양한 관념을 서로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고국을 떠나 도전적인 선택을 한 것은 자신만의 기로를 스스로 보장하고 싶었던 연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현재 꽤나 성공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구축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다. 그러한 그가 다양성의 시대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동양과 서양, 장식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등 어떤 것도 '줄 세우기'를 할 수 없는 가교로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한정운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편집부 제공

젊은 작가 이예림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알프레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2018년도 미국『Ceramic Monthly』 Emerging Artist로 선정되었으며 조지아대학교와 필라델피아 클레이 스튜디오, 아치브레이재단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하였다. 2023년 미시건 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도파민 드레싱」을 비롯하여 총 6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2019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23청주공예비엔날레 등에 참여하였다.